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튼튼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재)	00 MBC 여성토론 위드	10 KBC 생활뉴스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문화四色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30 뉴스 특급	00 연중기획 빛고을 아카데미		10 MBC 네트워크특선 〈생물유전자원과 한국의 미래〉	55 날씨와 생활
2	40 직언직설	00 민선 6기 특별기획 함께 가면 길이 된다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다큐+감성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ITU 전권회의 특선 앙코르 KBS 파라노마 〈플랫폼 혁명 제1편〉	00 키오카(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0 MBC 경제뉴스 10 내 사랑 똥 40 헬로키즈 아하 과학탐험대	00 SBS 뉴스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재)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뭉게공항2(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피	00 밥상의 신(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KBC 생방송 투데이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20 201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또는 준플레이 오프 5차전
7	2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뻐꾸기 둥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8	20 내조의 여왕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30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11	0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 다큐 〈그 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채널 A 일요기획	50 TV, 책을 보다(재) ①:30 T타임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걸작드라마 〈아틀란티스- 운명의 장난〉 ①:40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살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50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골프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나의 성공비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코코몽2(재)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원더 볼즈(재)
09:20 출동 슈퍼윙스(재)
09:35 빼꼼
09:40 부모 〈부모광장〉
10:10 EBS 특강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호수의 나라 말라위〉(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생활백과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3:50 사이틴(Sci-teen)
14:00 두키 탐험대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코코몽2
15:00 신다는 요정 학교
15:15 지구를 지켜라
15:30 올리비아
15:50 피터 래빗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두다다쿵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지파이터스
19:30 EBS뉴스
19:50 EBS 미술기행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올라! 멕시코〉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2:30 〃 〈영어-듣기〉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04:10 〃 〈사회〉
05:00 〃 〈한국사(상)〉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06:40 압축탐스런 〈물리 I〉
07:30 2014 포스 〈문학 I〉
08:20 수능특강 light〈영어-독해〉(재)
09:10 〃 〈영어-듣기〉(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I A형〉
13:05 〃 〈국어A형〉
14:00 〃 〈물리 I〉
14:50 〃 〈화학 I〉
15:40 〃 〈생명과학 I〉
16:30 〃 〈지구과학 I〉
17:20 〃 〈윤리와 사상〉
18:10 〃 〈법과 정치〉
19:00 〃 〈생활과 윤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21:00 〃 〈수학 A형〉(재)
22:00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EBS플러스 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나의 성공비결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 1(상)〉
10:30 〃 〈역사 1〉
11:10 〃 〈국어③④〉
11:50 〃 〈수학 2(상)〉
12:30 등업신공 〈수학1(상)〉
13:10 〃 〈수학2(상)〉
13:50 〃 〈과학2(상)〉
14:30 〃 〈수학2(상)〉
15:20 만점왕 〈국어3-2〉
15:50 〃 〈국어4-2〉
16:20 〃 〈국어5-2〉
16:50 〃 〈국어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18:00 TV 중학 〈문학 3〉
18:40 〃 〈비문학 3〉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신공 〈수학3-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24:00 백점공략 〈수학 1〉
24:30 〃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7일(음 윤9월 4일 辛未)

子 36년생 실마리를 찾게 되리라. 48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자. 60년생 상태가 불량하니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72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입항할 수 있느니라. 84년생 결정 했으면 번복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9, 32

丑 37년생 지속된다면 성취하느니라. 49년생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는 동세이다. 61년생 획일적이라면 곤란하다. 73년생 작은 것이 쌓이면 봇물 터지듯 할 수 있다. 85년생 내리막길로 향하리라. 행운의 숫자 : 91, 49

寅 38년생 온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62년생 타의에 좌우 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74년생 부드러운 논리가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82

卯 39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 하느니라. 51년생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75년생 현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12, 86

辰 40년생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52년생 실제 내용을 확인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64년생 요체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정확히 이행해야 말썽이 없다. 행운의 숫자 : 59, 90

巳 41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 53년생 경중에 따라 완급을 조절해야 할 때이니라. 65년생 무능한 다수 보다 영향력 있는 하나가 백 번 나을 것이니라. 77년생 착오 한다면 잃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04

午 42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겠다. 54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66년생 수고로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며 대응 하자. 78년생 갈림길에 서 있으니 냉철해야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77

未 43년생 돌발 상황에 봉착하게 되리라. 55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67년생 최소한에 그쳤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79년생 균형 속의 다채로움이 번영을 꾀한다. 행운의 숫자 : 66, 21

申 44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56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놓여 있느니라. 68년생 주변의 수고로움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80년생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8, 60

酉 45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57년생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69년생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8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67

戌 46년생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여러 가지 길이 보일 것이다. 58년생 드나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안전하다. 70년생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82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0, 89

亥 47년생 필수적인 것은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59년생 내용이 충만해야 빛을 보게 된다. 71년생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83년생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발언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8,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5년만의 복귀 부담감 '마마'덕에 떨쳐냈죠"

송윤아, 시한부 엄마 열연에 시청자 극찬

성공적인 복귀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적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가, 언론과 시청자로부터는 극찬이 쏟아진다. 표정관리가 힘들다. 몸둘 바를 모르겠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며, 아직 작품을 끝낸 피로가 고스란히 어깨 위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한동안 악플과 루머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5년 만의 연기 재개, 6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불안함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웬걸, 데뷔 이래 가장 전폭적이고 폭발적인 호평을 받았다.

MBC TV '마마'를 끝낸 송윤아(41)를 지난 24일 인터뷰했다. '배우 송윤아'가 돌아왔다.

-드라마 끝내고 지난 며칠 어땠나

▲ 지난 토요일 촬영이 끝난 후 곧바로 승윤이 엄마로 돌아왔다. 촬영하느라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일요일 하루종일 같이 있어줬고 어제는 유치원 친구 생일파티가 있어 같이 가서 놀아줬다. 드라마가 끝나니 진짜 내 아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며) 떡하니 버티고 있다.(웃음) 승윤이가 처음에는 극중 아들 그루를 질투해서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좋아하더라.

-성공적인 복귀다. 소감이 어떤가

▲드라마 제작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드라마 들어가기 전은 그때대로 감사한 게 많았는데, 이 드라마 하면서 "좋은 드라마"라는 인사를 정말 많이 들어 되게 감동적이었다. 배우로서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 없다. 하지만 이번처럼 "좋은 드라마 만들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고, 그래서 내가 더더욱 감사드린다.

-시한부 싱글맘 한승희 연기가 힘들었을텐데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렵게 촬영했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인데다, 체력이 예전같지 않고 다른 캐릭터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나중에는 회가 거듭될수록 내가 도대체 이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었다.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신이 나올까 두려움이 컸다. 어차피 어려운 역할 좀 편하게 대했으면 좋았을텐데, 나 자신을 내내 스스로 힘들게 쪼였던 것 같다. 내 능력 밖의 신들이 자꾸 들어왔다.

-그사이 실제로 엄마가 된 것이 이번 연기에 도움이 됐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엄마 연기를 하는 배우들 중에는 결혼을 안한 분도 있고, 출산을 안한 분도 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엄마 연기를 다 잘한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 자칫 실제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해냈다고 말하는 것 같아 좀 난감하다. 물론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한승희의 상황과 심정이 더 마음 깊이 와 닿은 부분은 있다. 한승희도, 그 아들 그루도 기가막힐 정도로 너무 불쌍했다.

-새롭지 않은 이야기인데 성공했다

▲촬영장에서 문정희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드라마는 모든 배우가 그 배역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 서지은 역의 문정희는 물론이고, 한승희 아들 그루도 윤찬영이가 아니었다면 내게서 그런 감정이 안나올 수도 있었다. 그루라는 아이도 찬영이가 연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온 것이다. 또 문태주 역도 정준호라는 배우가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해줬다. 그외 다른 인물들도 하나하나 다 너무 잘해줬다.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한다. 대본을 보며 매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무살이 된 그루가 등장하는 엔딩장면까지 화제를 모았다

▲그게 '마마'의 첫 촬영이었다.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그루의 성인 역 박서준과 내가 그날 처음 만나서 그 장면만 찍은 것이다. 우리 둘이 안 것은 나중에 한승희가 죽고 그루가 스무살이 돼서 엄마랑 상상 속에서 바이크를 타는 장면이라는 것뿐이었다. 촬영하고나서는 그 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 역시 마지막회에서 엔딩을 보며 놀랐다. 사실 뒤로 갈수록 내가 살도 많이 빠져서 그때 찍은 것을 그대로 엔딩에 써도 될까 싶기도 했고, PD님 역시도 만약 그 신을 붙여서 어색하면 다시 찍겠다고 했는데 편집했더니 의외로 잘 이어졌다고 하더라.

◁ 미생 '장그래' 임시완

'장그래· 설내일' 네티즌 관심 후끈

원작 '미생·노다메 칸타빌레'과 비교
배우 연기에 갑론을박 … 호불호 갈려

인기 만화에 뿌리를 둔 드라마들이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이 원작인 tvN '미생'과 니노미야 도모코의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출발한 KBS 2TV '내일도 칸타빌레'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원작과 드라마 주인공들 간 싱크로율을 측정하는 시도뿐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양한 형태로 현재진행형이다.

'미생'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됨에도 드라마는 1화 시청률 1.7%로 출발해 2화 2.5%, 3화 3.4%(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로 상승세를 탔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30분에 방영되는 드라마는 온라인 여론을 반영한 줌인터넷 'TV 인터넷 관심도' 조사에서도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의 공세를 이겨내고 10월 셋째 주 내내 1·2위를 차지했다.

직장인들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원작의 덕도 크지만 드라마는 원작 못지않은 매력을 선사하며 다양한 시청자들을 두루 만족하게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 장그래를 연기하는 임시완이 있다.

"어린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함을 보일 때 짠한 마음이 있는데 임시완에게서 그런 연민이 느껴진다. 보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보는 듯한 청춘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뒷모습을 볼 줄 아는 배우다"(윤태호 작가)

임시완은 지난주 방송에서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받기도 쉽지 않고, 세상 물정에 밝은 동료 인턴들의 냉대와 싸구려 동정 속에서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장그래의 심정을 작위적이지 않게 소화해냈다.

드라마는 앞으로 전쟁터와 다름없는 직장에서 바둑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장그래의 성장기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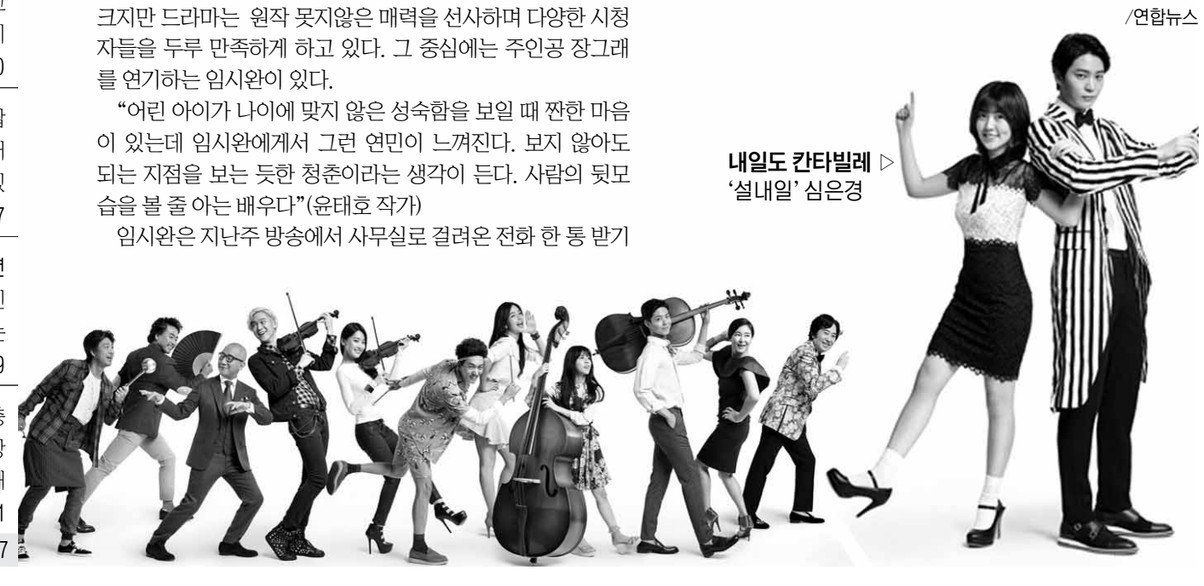
'내일도 칸타빌레' 주인공 설내일을 맡은 심은경(20)의 연기는 온라인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자유롭게 살다가 차유진(주원 분)을 만난 뒤 음악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설내일 연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영화 '수상한 그녀'로 800만 여배우가 된 심은경의 연기력은 그동안 호평 일색이었다.

하지만 심은경은 막상 방송이 나가자 일본판 드라마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로부터는 '노다메 역의 우에노 주리보다 사랑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원작을 보지 않은 이들로부터는 과장된 연기가 낯뜨겁다거나 어색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심은경 자신도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제작발표회에서 "촬영 중 생각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내일도 칸타빌레 ▷ '설내일' 심은경